

'30만명대 유행 대비' 검사소 다시 늘린다...병상도 확대

병상 4000개 추가 확보...1435개 오늘 행정명령 임시선별검사소 70개 확대...보건소도 시간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30만명대 유행에 대비해 방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추가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대비 방안을 내놓은 건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BA.5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고 정점 시기도 단축되고 있다.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며 "8월 말까지 하루 평균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28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루 확진자 30만명 이상 발생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역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유전자증폭(PCR) 검사 역량은 일일 85만건이다. 이중 하루 10만건 정도의 PCR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55개소, 비수도권에 15개소 등 전국 70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운영한다. 보건소의 코로나19 검사 운영 시간과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말 검사 시간도 연장한다.

BA.2.75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규 변이의 유입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기 위해 변이 감시 기관을 기존 63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치료제는 하반기에 34만2000명분, 내년 상반기에 60만명분 등 총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현재 재고량은 77만3000명분으로, 정부는 10월까지의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진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이달까지 1만개소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원스톱 진료기관은 6500여개

서 3500여개가 추가돼야 한다.

박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검진, 진단이 이뤄지는 곳은 1만1000여개가 넘는다"며 "투약 불편함 이런 부분들 의료기관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이고 치료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세부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진료 당일 처방과 병상 연계는 하는 '패스트 트랙' 대상자는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입소자를 포함한다.

병상은 30만명 유행 수준에 대응해 4000여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하고, 이날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이중 1276개는 일주일 내에, 119개는 2주 내에, 나머지 40개는 3주 내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가장 많은 건 준-중증 병상이다. 800개에 육박한 778개"라고 말했다.

산소 요구량이 5L 이하 중증병상환자에 대해 퇴실명령을 하는 재원적성평가는 현재 주3회에서 주4~5회로 강화한다.

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할 수 있는 종합 상황판을 개선하고 중증응급실 한 이송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루 15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역상황실을 가동해 코로나 응급환자 전원 업무지원을 실시하며 지역 내 확진자 이송, 응급실 진료, 입원 과정 간 신속 대응하도록 시·도 응급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완료 서울시가 일제가 갈라놓은 창경궁과 종묘를 90년 만에 다시 연결하는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울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축구장보다 넓은 녹지(약 8000㎡)를 만들어 끊어졌던 녹지축을 이었다. 사진은 '창경궁-종묘 연결 역사복원사업' 프레스 투어가 열린 가운데 취재진들이 담장길 소나무숲을 둘러보고 있다.

'대환대출 미끼' 보이스피싱 전달책 검거...2억원 전달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타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조직이 불러준 콜

택시를 옮겨 타며 범행을 이어 갔고 전주, 대전, 광주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총 2억원 상당의 현금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A씨의 여죄를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슬비기자

'두 아들 살해' 40대모 징역 20년 선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0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먼저 어렵게 자식들을 길러온 김씨의 사정, 평생 간직해야 할 죄책감, 시댁 등 가족들이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언급하며 다소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남편의 수익에 의존해서 키우면서 힘든 적이 많았을 것 같다"며 "(범행을) 남편이나 시댁에 대한 복수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불안감과 절망감이 정말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된다"며 "절령 자유의 몸이 된다 하더라도 평생 내 자식들을 내 손으로 죽이고 나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생명을 앗아갔기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이나 설명도 없었고 김씨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며 "그래서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살해 후 자살미수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에게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만이 있다"며 "불안에 시달린 것은 알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직업을 구해본다는 상담소에 가서 불안증에 대해 상담을 받아본다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이나 사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다면 좋았겠지만 기본적으 이것은 자기 책임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금천구 다세대 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저지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틀간 사건 현장에 더 머문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과 별거한 뒤 두 아들을 홀로 키워오던 김씨는 남편이 보내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다. 그러던 중 남편의 해고 소식과 함께 자신이 사는 집이 압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남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사망하면 남편과 시댁이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씨 측 변호인은 첫 번째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복수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닐 것이라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해 이와 관련해 법정 내에서 다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재환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